세상대신 곧장 천국에 태어났더라면

(사무엘하 13:23~39)

28.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30.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4.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으로 <세상 대신 곧장 천국에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대신 곧장 천국에 태어났더라면'

얼마 전에 "마션(The Martian, 화성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화성(Mars)에서 조난당한 우주비행사의 생존기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멀 때에는 2억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있고 어제 기사에서는 11년 만에 가장 가까워진 거리가 7천3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져있다고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있어서 우주선으로 왕복하기 위해서는 5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래 화성 탐사선 아레스 3호를 타고 여섯 명이 도착했는데, 태풍에 휘말리게 되어 탈출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여 한 명이 낙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구조가 올 것을 기다리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남은 장비들을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태워서

물을 만들고 동료 우주인들의 진공 포장된 인분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들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합니다. 그러던 중 54일 만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와 연락이 닿게 되어 지구에서는 그를 구하기 위한 9개월간의 작전이 시작되고(왕복 18개월) 화성에서는 구조가 오기까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데 온 지구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묘미는 감정이입을 통한 주인공과의 동일시입니다. 심지어는 주인공이 은행 강도일지라도 영화를 보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성공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구에서 8천만 킬로미터, 9개월이나 떨어진 화성에서 혼자 남은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온 인류가 이 사람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구조를 이루어 내려고 마음 졸이고, 결국 그를 구조하고 온 지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눅15: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하고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표현이 눈에 띄는데 ‘한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화성에 남은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 전체가 마음 졸이며 구조를 바라고 그가 귀환했을 때에 함께 기뻐하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인채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대함으로 관계를 맺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란 표현이 특별한 의미로 와 닿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8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은 아무리 긴 시간을 소모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100년을 달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고, 하늘에서는 그런 나 한 사람을 하늘로 귀환시키려고 마음 졸이다가 하늘의 사람으로 확정되면 온 천국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훌륭함을 보고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구에서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주님처럼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지구에 태어나게 하셔서 육체를 입고 살게 하시며, 육체를 입은 채로는 갈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훌륭한 일의 결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 날 만드셨다면 애초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그에게 무슨 일인지 모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에 죄가 들어왔듯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임한 재앙이 엄청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죗값 안에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이 사건이 주변의 모두에게 잊히기를 2년이나 기다렸다가 기어코 이복 형 암논을 다른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했습니다. 모든 왕자들은 도망하였는데 이 소식이 와전되어 다윗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죗값으로 인한 혹독한 재앙이 집안에 임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죄악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마5: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하시는데 살인입니다. 또한 간음에 대해서는 마5: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다윗과 똑같이 무거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 모든 죄악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따져보면 모든 것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육체를 입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유전 죄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을 사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담 이후로는 그냥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되었을 것을 왜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이 모양으로 죄악의 인연을 청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거들떠 본 적도 없으십니다. 억제하고 절제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가지시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때에는 사명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한 번쯤 다 가져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만 챙기시고 곧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구에 인한 것입니다. 그 욕구를 이룰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권력을 통하여 욕구를 이룬다하여도 그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문제가 육체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생겨

나는데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마디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 앞서 육일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라이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보좌 앞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과 같습니다.
한 여자가 나보다 더 멋진 남자를 놔두고 나에게 오면, 그 여자를 평생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그 여자 주변에 나보다 못한 시시한 남자들만 있는데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야만 육체를 통해 만나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더 깊이 마음을 드려서 사랑하는 것이 의미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구제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태어난 천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조차도 걸리고 마는 죄악의 덫이 육체가 없는 천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오히려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지어진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의미는 기회의 마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666의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칠일 째에 안식하셨습니다. 666은 6이 세 번 겹친 것으로 완전함을 뜻합니다. 즉 666은 완전히 이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자들이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상에 마음이 함몰된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좋아하는데 이들이 사탄의 자식이고 666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자녀는 어떤 이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칠일 째에는 안식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은 죽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표적으로 성취하였던 구약의 번제였습니다. 이 안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마음이 이 세상에 다 쏠려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 사탄의 자식 666의 아들들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돈 버는 일, 자식 키우기, 사업의 성공, 정치, 나라걱정 등에 다 쏠려 있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666의 아들일 뿐입니다. 문학가와

예술가들이 아름답고 깊은 사상을 담은 작품을 창조할지라도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다면 666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과를 암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암논은 다말로 인해서 얼굴이 파리해질 정도로 상사병에 빠져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말의 자리에 돈이나 사업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세상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이 다말을 범하자 그 동안 가졌던 연정의 정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미워했는데 우리도 세상 것을 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린 재벌이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때에는 돈을 가장 미워할 것입니다. 외아들을 가진 과부가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을지라도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 암논이 다말을 연모했다가 강제추행 뒤에 그보다 더 강하게 미워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가장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돈, 자식, 육체의 건강, 목회, 사업, 권력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보다도 몇 배나 더 무시무시한 정도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라이벌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멘트였는데 그것을 좋아하므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마음에 들어오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밀쳐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더 근본적인 시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육체를 가졌기에 죄악의 덫에 걸려서 밧세바를 범했고, 암논도 육체를 가졌기에 다말을 범했다가 버렸으며, 압살롬도 육체를 가졌기에 2년 동안 암논을 원수로 마음에 담았다가 살해했는데 이 모든 것이 육체가 있음에 기인하는데 왜 육체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육체를 가진 것은 기회입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번제의 의미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셨던 아들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까지 연장되고, 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성에 홀로 남은 우주인 한 명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해 지구 전체가 마음을 졸이다가 그가 귀환하자 모두가 기뻐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천군천사가 나 한사람이 육체가 있으므로 마음을 뺏길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궤도를 따라 하나님께

로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늘로 귀환할 수 있기 위하여 마음 졸이며 기도할 때 하늘나라 전체가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기회가 은총임을 알게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날마다 마음을 이 땅에서 빼내어 주님의 궤도를 따라 아버지께 드림으로 나로 인하여 날마다 천국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